

불모지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8	조사자	홍재범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대상명	불모지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차범식	출간연도	1957년	
내용	최노인	뛰니뛰니 해도 그 강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청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주거던!		
	어머니	하기야 이 동리에서 옛부터 사귀어온 집은 이제 그 강약방하구 우리집뿐인걸요.		
	최노인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서 산 지가 꼭 사십칠 년이고 그 강약방이 사십 년이 되니까…… 그리고 보면 나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오십 년 동안에 이웃 얼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최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오?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 * * * *			
	경운	오빠 아침은?		
	경수	먹었다.		
	어머니	어디서?		
	경수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 해장까지 얻어먹었죠. (그이 태도는 어딘지 차고 쌀쌀하며 자포자기적이다.)		
	경운	(일부러 농조로) 서울 인심은 아니군요?		
	어머니	(상을 찌푸리며) 술 좀 삼가해라. 제 몸을 생각해야지!		
	경수	생각 끝에 마신걸요. 헛허……		
	어머니	원 애두…… 참. 거 영등포 어느 공장에서 오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었지?		
경수	기다리라나요?			
(중략)				
경운	요즘 취직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경수	그래 네 말대로야! 누구나 하는 소리가 그렇지! 친구고 선배고 걸으로는 아주 염려한다는 표정으로 하는 소리가 매양 그렇지! 제길……			
경운	(금시 울음이 터지려는 표정으로) 오빠, 전 결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전……			
경수	(허튼 웃음을 지으며) 그래 너만은 내 귀여운 동생만은 아니지! 도대체 실업자도 많지만 자기 직업에 대해서 너무 떨고 매어달리는 사람이 더 많은가 봐요.			
어머니	그게 무슨 얘기니?			

경수 옛날엔 실으면 직업을 바꾼다던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가는 이동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예요.

어머니 그래……

경수 한번 직장을 붙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어달리니 일자리가 빌 턱이 있겠어요. 못난 자식들!

어머니 난 또 무슨 얘기라구 호……

경수 그렇게들 직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식하고 공포증까지 품으며 살고 있으니 어디 우리 같은 놈이 처신이나 하게 되었어요.

경운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 도리가 없으니까요.

경수 싱거운 친구들! 싫으면서도 싫다는 얘기 하나 못하고 울면서 거자먹기로 직업에 매달려서 사니 생전 가야 우리 몫이 나긴 글렀다. 이 말씀이죠!

어머니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은 좀 봐 줘야지……

경수 (냉소를 뱉으며) 그걸 안다면 세상이 이 꼴이겠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형님이요, 아저씨지 볼 장 다 보면 지나가는 똥개 취급이라니까요…… 헛하…… 요컨대는 취직에도 먹자판이지! 밀천 안 넣고는 어렵도 없어! 그러니까 또 취직만 되면 그 본전에다 복리까지 가산해서 주어 잡수시기가 일 쉼 아니예요. 그러나 내겐 그 돈도 없어! 돈!

어머니 아무리 세상이 막 되었기로 그래 인정도 의리도 없단 말이나?

경수 인정이요? 예미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애비를 죽이는 판국에 인정이요? 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아먹는 격이죠! 내가 죽어야지! 죽는 적이 가장 편한 길이야! (하며 마루바닥에 드러눕는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내려다본다)

* * * * *

경운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오빠는 매사를 그렇게 비뚤어진 생각으로 처리하시자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경수 뭐라고? 아니 이 계집애가 못할 소리가 없구나.

경운 저를 때리시겠어요? 때리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오빠는 만족하지도 못하실걸요.

경수 너는,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경운 두려웠지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말썽을 부리는 문제의 하나가 제대 군인이니까요. 오빠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우리 오빠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은근히 바랬고 또 한편으로 두려워했어요. 길을 가거나 전차 안에서나 제대 군인을 보면 저의 마음은 어둡고 쓸쓸해졌어요. 오빠! 아시겠어요? 네?

경수 (혼자 소리로) 내가 그렇게 미웠던 것을……

경운 사회가 나쁘고 주의가 무관한 것만을 탓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아무렇게나 펼치고 다니는 것은 약할 짓이라고 봐요! 오빠! 저를 건방진 년이라고 여기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경수 나더러 도둑질을 하란 말이야?

경운 할 일 없으시면 집에 계세요. 남은 제대 군인처럼 술 마시고 행패하고 집안 사람을 울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빠 때문에 밤잠도 안 주무신 줄이나 아세요? 어젯밤도 새벽 두시까지 안 주무시고……

어머니 그만두지 못하겠니? 경운아! (그네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경수는 멍하니 땅을 내려다보고만 있다.)

경운 오빠가 취직을 안 하신다고 당장에 굶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아직은 별 수 있어요!

* * * * *

경재 사실 형은 불쌍해요. 군대 가기 전엔 얼마나 명랑한 성격이었어요. (약간 시무룩해지며) 아버지 형이 놓고 먹는 꼴이 보기 싫다지만 놓고 싶어서 놀게 되었나요?

최노인 (비꼬운 어조로) 전쟁 때문에 망한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던? 서울 장안에서

	<p>제놈뿐이야? 흥…… 그게 다 핑계라는 거야! 할려고 덤비면 뭇인들 못해? 연탄집 경재 준식이도 세탁소의 팔롱이도 다 전쟁에 갔다 왔는데도 돌벌이만 잘하더라! 그 사람들이야 국민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무엇이건 벗어부치고 할 수 있지만 형은……</p> <p>최노인 뭐라고? 이 녀석아! 그래 공부 안 한 사람은 일하고 대학 공부 한 사람은 놀고 먹으란 법이라도 생겼다던? 응? 저런 맹랑한 소리 좀 들어봐? 그래 애비가 너희들 공부시킬 땐 편안히 누워서 학비를 댄 줄 아니?</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형사 종로에 있는 귀금속상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협박 끝에 잇가 삼백만원에 해당하는 귀금속을 절취하여 도망쳤어!</p> <p>어머니 경수야! (하며 마루 끝에 쓰러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응?</p> <p>형사 그러나 범행 사십분 후에 붙잡혔지요. 그러니까 강도 미수범이지요!</p> <p>경수 강도가 아닙니다. 두 달만 빌리자고 했어요!</p> <p>형사 듣기 싫어! 그걸 말이라고 해?</p> <p>경수 정말입니다! 난 돈이 필요했기에……</p> <p>형사 돈을 빌리려면 좋게 빌릴 것이지 무기로 위협하면서 빌려?</p> <p>경수 정말 흠칠 의사는 없었어요. 순간적으로……</p> <p>형사 좌우간 서로 가서 다시 취조를 받아! 자 가자!</p> <p>어머니 (길을 막아서며) 잠깐만…… 잠깐만 얘기라도 하게 해 주시우!</p> <p>최노인 (답석 주저앉으며)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도둑놈하고 얘기를 해? 나가라…… 썩 나가지 못 해!</p> <p>경수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 올릴 게 있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곱게 보이려다가 그만 이 꼴이 되었군요. 저 때문에 이 집을 팔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걸 우두커니 방관할 수도 없는 저였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작정이었어요.</p> <p>경재 형님은 천치 바보야! 비겁해!</p> <p>경수 네 말대로 나는 철저히 비겁했었지! 그러나 나 하나 때문에 집안이 헝클어지고 그늘길 것을 모르는 척할 순 없었던단다…… 나만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었으니까…… (사이) 그러나 변화한 거리에 나섰을 때 내 마음은 차츰 변해졌어! 그러다가 보석상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의 나는 벌써 엉뚱한 것을 공상했었다. 경재야!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 순간만은 매력있는 일이었다. ‘이왕 죽을 바엔……’ 이런 생각이 나를 마구 몰아댔다……</p>
<p>평가</p>	<p><불모지>는 전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 가족이 겪게 되는 불행을 그리고 있다. 급 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최노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 갈등을 표현하면서 궁극적으로 는 문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상을 문제 삼는다. <불모지>는 주변 환경의 문명화로 인한 도시 서민의 피해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에서 인간 정신의 황폐화 내지는 공 동화 현상을 말하기 위한 극적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모지’ 라는 제 목도 문명화로 인한 인간 정신의 공동화 혹은 폐쇄화 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 범석은 원근법적 관찰로 인해서 회곡의 전반부에서는 ‘현대문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피해의 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도시 서민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현대문명화 에 따른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가치관 혼란상’ 을 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회곡의 내적 갈 등을 보면, 최노인 가족들이 각기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현대 문명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적 접경에서 야기되는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 혼란 의 문제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에게 있어서 당시대의 가치관의 혼란 문제가 역사적 필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출처: 여세주, 「차범석의 리얼리즘 정신과 50년대 회곡」, 무천극예술학회, 『차범석 회곡 연구』, 극학자료원, 2003, 31~65면.</p>

2. 보존필요성

- 전후 도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보여주는 희곡
- 전후 피폐해진 서울 사람들의 모습 표현


3. 활용방향

- 홍보를 통해 전쟁이 준 정신적, 물질적 고통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차범석 (車凡錫, 1924년 ~ 2006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4년 전남 목포시 북교동에서 출생 - 1932년 목포 베일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 입학 - 1938년 광주 고등보통학교(현 광주서중) 입학 - 1944년 징병제도 실시에 따라 병역면제 특전을 받기 위해 광주 사범학교 강습과 입학 - 1945년 목포 북교초등학교 근무. 일본군에 소집당하여 제주도에 복무 중 8·15 해방을 맞음. 북교초등학교 복직 - 1946년 연희대학교 복직 - 1947년 학제변경에 따라 동교 문학부 영문과 편입. ‘연희극예술 연구회’ 조직해 연극활동 - 1949년 대학극회 조직 - 1956년 제작극회 창단 - 1961년 문화방송(주) 연예과장 취임. 이후 CM과장, 제장부장, 편성부국장 등 역임 - 1963년 극단 산하 창단 - 1965년 서라벌예대, 이대, 연대 등에 출강. 연세대 영문과 4학년 복학. 국제 P.E.N. 클럽 중앙위원 선임 - 1966년 국제 P.E.N.대회 뉴욕 회의 한국 대표로 참가.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 - 1967년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취임. 동국대학 출강 - 1969년 국제 P.E.N.대회 망퐁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1971년 MBC사임. 간염으로 입원 가료 - 1972년 한국예술 윤리위원 위촉 - 1973년 예총 부회장 선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 선임 - 1974년 중앙국립극장 운영위원 위촉. 서울특별시 문화홍보분과 자문위원 위촉 - 1975년 I.T.I. 베를린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1976년 한국방송심의위원 피선 - 1978년 I.T.I. 한국본부 부위원장 피선. 대한민국 연극제 심사위원 위촉 - 1979년 서울예술전문대학 출강. I.T.I.소피아(불가리아)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1981년 한국방송 광고공사 광고심의 위원장 위촉. 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 피선 - 1982년 문화방송 자문위원 위촉 - 1983년 극단 산하 해단. 서울 극작가그룹을 발족하여 회장에 선임 - 1984년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장 취임 - 1986년 서울 88예술단 단장으로 취임 - 1989년 서울예술전문대학 극작가 교수로 취임 - 1995년 대한민국 예술원 부회장에 피선. 서울예전 교수직 사임 - 1996년 중앙국립극장 운영위원회 위촉 - 1998년 한국문예진흥원 원장에 취임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유달유학생회 주최로 박경창 작 <신촌> 연출·주연 - 1949년 제1회 전국대학연극 경연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희랍극 <오이디푸스 왕> 연출 - 1951년 <별은 밤마다> - 1952년 <답> <제4의 벽> <저주> - 1953년 <윤씨 일가> <잔재> - 1954년 번역극집 『근대 1막 극선』(향도출판사) 출판 -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희곡) <밀주> 가작 입선 -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희곡) <귀향> 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무적> <불모지> <사등차> <성난 기계> <계산기> - 1960년 <상주> - 1961년 <공중 비행> - 1962년 <태양을 향하여> <산불> <소낙비> - 1964년 <청기와집>> - 1965년 <열대어> <스카이라운지의 강사장> <강강수월래> - 1966년 <풍운아 나운규> - 1967년 <장미의 城> - 1969년 일본 희곡 <고독한 영웅> 번역해 공연. <대리인> - 1970년 <왕교수의 직업> - 1971년 <환상여행> - 1972년 <모지의 태양> <과도가 지나간 자리> <위자료> - 1974년 <약산의 진달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꽃바람> <활화산> - 1975년 <셋이서 원무곡을> <안개소리> - 1976년 <학살의 숲> <쌍둥이의 모험> - 1977년 <손탁 호텔>.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화조> <오관>으로 참가 - 1980년 MBC-TV <전원일기> 집필(1년간) - 1981년 <학이여 사랑일레라> - 1993년 회고록 『예술가의 삶』 출간 - 1995년 <바람분다 문열어라> - 1997년 <나는 불섬으로 간다>. 자서전 <떠도는 山河> 연재 - 1998년 <검사와 여선생>. 자서전 출간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제1회 전국대학연극 경연대회 연출상 -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가작 입선 -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1962년 목포시 문화상 - 1969년 신문화 60년 기념 공로 표창(국문총리상) - 1970년 제2회 대한문화예술상(연극부문) - 1975년 제2회 반공문학상 - 1980년 목포 송옥문화상 예술부문 대상 - 1981년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 - 1982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 1983년 제7회 동랑 연극상. 제4회 방송대상 라디오 극본상 - 1993년 이해랑 연극상 - 1996년 금호예술상(광주) - 1997년 서울시문화상 - 1998년 제1회 한림문학상(광주)
기타사항	-

※ 출처: 무천극예술학회, 『차범석 희곡 연구』, 국학자료원, 2003, 255~264면.

6. 기타사항